

자아탄력-자아통제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

전영순¹⁾ · 김태호²⁾ · 황순택³⁾ · 권은정¹⁾ · 임목옥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임상심리실,¹⁾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²⁾
충북대학교 심리학과,³⁾ 충청북도 충주 교육지원청 위센터⁴⁾

Temperament and Character Traits of Adolescents by Ego Resilience and Ego Control Level

Young-Soon Jun, M.A.¹⁾, Tae-Ho Kim, M.D., Ph.D.²⁾,
Soon-Taeg Hwang, Ph.D.³⁾, Eun-Jeong Kwon, M.A.¹⁾ and Mok-ok Lim, M.A.⁴⁾

¹⁾Department of Psychology,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pital, Chungju,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Chungju, Korea

³⁾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Korea

⁴⁾Chungcheongbuk-do Chungju Office of Education Wee Center, Chungju, Korea

Objectives :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emperament and character traits among adolescents classified by ego resilience and ego control level.

Methods : A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was performed on participants, and a California Child Q-Test (CCQ) was tested for by the parents of the adolescent participants.

Results :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show that the participants ar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based on CCQ score and item response patterns. The three groups are named the ego resilience group, the undercontrolled group, and the overcontrolled group. The ego resilience group indicates that they have a high level of interest and curiosity but yet they are not easily tempered. Moreover, they behave proactively with a reasonable level of responsibility in order to improve themselves. In contrast, among the undercontrolled group, it is observed that, although the group shows even higher level of interest, curiosity and honesty, they are careless, more impulsive, and have a lack of delayed gratification and shame.

Conclusions : The overcontrolled group shows that they are the most cautious and reflective group among the three but also show emotional instability such as strong criticism and passive-aggressiveness. In this stud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Ego Resilience · Ego Control · Temperament · Character Trait.

서 론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개인은 그에 비례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외부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개개인의 대처 양식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자아정체감 및 성격 형성에 대한 과도기를 거치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환경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병리를 경험할 위험성 및 심리적 부적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사이에는 많은 중재요인이 존재한다.¹⁾ 최근 연구들은 이런 중재요인 중 각 개인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들이 어떤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격변인의 일종인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개념(ego resiliency/ego control model)이 제안되었으며,²⁾ 이 개념을 토대로 자아탄력집단, 과잉통제집단, 과소통제집단 등을

접수완료 : 2011년 12월 19일 / 심사완료 : 2012년 2월 7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Tae-Ho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82 Gugwon-daero, Chungju 380-704, Korea

Tel : +82.43-840-8990, Fax : +82.43-857-1380

E-mail : taosea@naver.com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³⁻⁷⁾ 자아통제 개념을 받아들여 집단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집단의 행동적·임상적 특징을 탐색하는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아탄력성(ego resiliency)이란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자원 중 하나로, '환경적 변화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 '인지적, 사회적,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이라고 정의된다.²⁾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환경적 요구에 따라 충동을 억제하거나 표출하는 능력을 뜻하는 자아통제(ego-control)의 수준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는데, 연구자들은 자아통제를 양방향적인(bidirectional)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아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를 과잉통제(over-controlled), 자아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를 과소통제(under-controlled), 자아통제가 높거나 낮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자아탄력(ego-resilience)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²⁾ 즉, 자아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집단을 자아탄력집단, 그 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자아취약(ego-weakness)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아취약집단은 다시 자아통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과잉통제집단, 자아통제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과소통제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 집단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자아탄력집단은 적절한 자기통제력과 함께 희망과 유능감, 행복, 도전 등에 이르는 강인함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다.^{8,9)} 또한 이들은 긍정적 정서의 이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긍정적 정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10,11)} 반면 자아취약집단 중 과소통제 집단은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즉흥적이고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들 집단은 차후의 보상을 위해 당면한 욕구를 지연시키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¹²⁾ 과소통제집단과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과잉통제집단은 행동과 감정의 표현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특징이 있다. 소심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으로,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며, 욕구만족을 지나치게 지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⁴⁾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에 관한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을 성격 특성, 특히 5요인 성격이론(five factor model)과¹³⁾ 관련하여 자아탄력집단과 과잉통제집단, 과소통제집단에서 보이는 성격 특성 구성 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3,6)} 또 국내에서도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의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의 성격 특성이 규명되기도 하였다.¹⁴⁾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 과잉통제, 과소통제 집단의 성격 특질을 5요인 성격 검사(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를 통해 비교하였는데, 자아탄력 집단은 다섯 가지의 성격 특성 모두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분포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외향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더 성실하고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반면 과소통제 집단은 외향적이고 자기개방을 잘하나 성실성이 부족하였다. 또 과잉통제집단은 내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성실성이 부족하고 자기경험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유의 여러 심리적 특성 중, 유전적으로 타고난 대표적인 특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기질'이며, 이는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활성화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인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처벌이나 위협의 신호, 혹은 보상부재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억제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인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로 개인의 인성 특성을 설명하려 하였고,¹⁵⁾ Sjöbring¹⁶⁾은 이전에 보상된 행동이 지속적 강화 없이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것을 지칭하는 행동유지체계(behavioral maintenance system)이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후 Cloninger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을 발달시켜 각각의 행동체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기질로 기술하였고, 최종적으로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인내력(persistence)의 네 가지 기질 차원이 정의되었다.¹⁷⁾

성격은 이러한 기질 차원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기질에 의한 자동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하고,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받으며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 발달 양상에 따라 개인의 기질적 반응 특성이 조절되어 표현될 수 있다. Cloninger는 성격 차원을 자율성(self-directedness), 연대감(cooperativeness),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의 세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기질이 다양한 환경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이라는 점에서, Block과 Block²⁰⁾이 언급한 자아통제 및 자아탄력성 개념과의 관련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행동 활성화, 행동 억제, 행동유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기질 차원과 자아통제 개념은 자극에 대한 개인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또 자아통제의 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과, 성격 발달 양상에 따라 기질적 반응 특성이 조절되어 표현된다는 점에서도 두 심리적 구성개념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기질 및 성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와 성격 특성 간의 관계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를 측정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캘리포니아 아동 및 청소년 Q 세트(California Child Q-Set, CCQ)를 사용하여 검증한 바 있다.^{3,4,6)}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CCQ를,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검사(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l)를 사용하여 환경 자극에 대한 자동적 정서 반응인 기질 및 성격이 자아탄력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자기통제 수준을 보일수록 기질 및 성격 특성 또한 적응적일 것이다.

방 법

1. 대 상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wee센터의 협조를 얻어 충주시 소재의 9개 중학교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중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검사와 부모용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동의할 경우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중학생 참가자는 각 학교 교실에서 Cloninger의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검사(JTCl)에 응답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CCQ는 보호자인 학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에 대해 응답하여 학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212명에게 검사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자료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전체 문항에 반응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189명의 자료가 회수되었고(회수율 89%), 집단 분류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179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최종 선정률 84%).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중학생이 68명(38.0%)이고 여자 중학생이 111명(62.0%)이었다. 연령은 만 12세가 79명(44.1%), 13세 94명(52.5%), 14세 1명(0.6%), 15세 2명(1.1%), 16세 3명(1.7%)이었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검사(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l)

JTCl은 Cloninger, Przybeck, Svrakic 및 Wetzel이 개발한 기질 및 성격검사¹⁸⁾를 청소년용으로 변환시킨 자기보고식 척도로, 청소년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어판 JTCl을 토대로 Min 등¹⁹⁾에 의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개의 기질 차원인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과 3개의 성격차원인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8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캘리포니아 아동 및 청소년 Q 세트(California Child Q-Set, CCQ)

CCQ는 개인의 행동, 정서, 인지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해줄 수 있도록 Block에 의해 개발된 California Adult Q-Set을 청소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한 것으로, Block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2,20)} 본 연구에서는 Ku와 Hwang⁸⁾이 한국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타당화된 CCQ 척도는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자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타당화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개념과 자아통제 개념의 하위 구성요소인 자아탄력성과 자아취약성, 과소통제와 과잉통제를 잘 나타내주는 각각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하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타당화 연구에서의 하위 문항 구성을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3. 통계분석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Q요인분석(Q-factor analysis 또는 inverse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3,14)} Q요인분석은 일반적으로 변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인추출 방법인 R요인분석과는 달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요인분석방법이다.²⁰⁾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을 분류하기 위해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Q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 189명의 CCQ 57문항에 대한 자료행렬표를 전치하였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직각회전(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적용 가능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한 요인 적용가능성(factor replicability)을 준거로 결정하였다. 요인 적용가능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우선 전치된 자료에서 표본을 중첩되지 않는 무선적인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한 집단에서 나온 요인들과 다른 집단에서 나온 요인들 간의 상관을 비교함으로써 그 일치도를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 2개 요인에서부터 5개 요인까지의 일치도가 산출되었으며 요인점수들 간의 일치상관을 제시하였다(Table 1). 결과를 보면

Table 1. Concordance correlation of factor loading

Factor	Concordance correlation of factor loading				
	1	2	3	4	5
2	.957	.699			
3	.921	.681	.667		
4	.769	.669	.666	.258	
5	.741	.648	.397	.372	.562

전체 표본을 2개 또는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성익한 응답으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에서 1차적으로 23명의 자료가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검사 상에서 다소 성급하거나 부주의한 반응 패턴을 보인 바 이것이 요인분석 및 일치상관 산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다. 또 2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집단의 특성이 단순화되어 세부적인 특성을 살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개의 요인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 3개의 요인들은 변량의 42.5%를 설명하였다(요인 1, 29.27% ; 요인 2, 7.23% ; 요인 3, 6.00%).

각 개인들의 요인 부하량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요인 부하량은 각 참가자들이 자신이 속한 유형의 성격특성과 닮아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Asendorpf와 van Aken,³⁾ Robins 등⁶⁾의 연구와 구형모, 황순택 등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준거를 적용하여 각 참가자들을 분류하였다. 즉 요인 부하량을 가지고 각 요인에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참가자들이 자신이 속한 유형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참가자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유형에서 최소한 .4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지녀야 한다. 둘째, 한 유형에 속한 참가자가 다른 유형과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두 번째로 높은 요인계수는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보다 최소한 .20 이상 낮아야 한다. 셋째, 참가자들은 세 유형 모두에서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 준거를 사용하여 전체 189명 중 108명(57.0%)을 분류할 수 있었다. 유형 1에는 77명(40.7%), 유형 2에는 15명(7.9%), 유형 3에는 16명(8.5%)이 포함되었다. 어느 하나의 유형에도 분류되지 못한 81명(42.9%)의 참가자들을 세 유형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집단과 CCQ 57문항을 이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6,14)} 참가자들이 CCQ 57문항에 응답한 패턴과 기존에 분류된 세 유형을 비교하여 참가자가 어느 특정 유형에 포함될 확률이 최소한 .80 이상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판별하였고, 이에 71명의 참가자들이 추가적으로 분류되었다.¹⁴⁾

결 과

1.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189명 중 179명(94.7%)이 세 유형 중의 하나에 포함되었다. 유형 1에는 112명(59.3%), 유형 2에는 31명(16.4%), 유형 3에는 36명(19.0%)이 분류되었으며, 분류되지 못한 참가자는 10명(5.3%)이었다. 분류된 세 집단 간에는 성이나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성 비교에서 $\chi^2(2)=1.215, p>.05$; 연령에서 $\chi^2(8)=10.997, p>.05$).

분류된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CCQ 57개 문항이 각 집단에 대해 가지는 요인 부하량의 크기를 참조하여 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였다(Table 2). 요인 부하량의 크기순으로 각 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 10개와 반대되는

Table 2. List of California Child Q-Test (CCQ) items representing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different groups

Z score	Group 1 CCQ item feature	Z score	Group 2 CCQ item feature	Z score	Group 3 CCQ item feature
1.75	41 Trust	1.88	35 Impatience	2.37	43 Vulnerable on criticism
1.59	02 Consideration / Care	1.62	17 Nervousness	1.52	05 Introspective
1.49	22 Quick recover on stress	1.58	12 Emotional indiscipline	1.48	41 Trust
1.44	11 Pride	1.31	06 Friendliness	1.44	24 Feeling pain under stress
1.40	04 Supportiveness	1.30	53 Easily excited	1.33	13 Nervousness
1.38	06 Friendliness	1.26	52 Grumbling	1.32	14 Worrying for long time
1.38	34 Composure / stability	1.25	39 Humor	1.20	26 Easily shifting moods
1.37	33 Commitment	1.01	16 Sharing with others	1.17	52 Grumbling
1.37	15 Perspective of others	0.99	30 Frankness	1.03	47 Prefer to be alone
1.36	40 Concentration	0.95	21 Curiosity	0.97	20 Apathy under stress
-1.06	50 Irrelevant emotion	-1.19	33 Commitment	-1.04	48 Confidence
-1.09	13 Nervousness	-1.21	42 Self underestimation	-1.08	32 Blame others
-1.13	17 Restless	-1.33	57 Tormented by others	-1.15	38 Guiltiness
-1.14	45 Tormenting others	-1.38	36 Concentration	-1.24	36 Concentration
-1.14	46 Aggressiveness	-1.42	56 Planned behavior	-1.26	54 Creativity
-1.21	53 Short temperament	-1.43	37 Planning	-1.28	34 Composure / stability
-1.22	27 Easily shifting moods	-1.58	34 Composure / stability	-1.41	46 Aggressiveness
-1.22	10 Exploiting rules	-1.79	47 Prefer to be alone	-1.45	51 Arrogance
-1.26	29 Exaggeration	-1.89	05 Introspective	-1.91	29 Exaggeration
-1.26	09 Immaturity under stress	-2.14	55 Shyness	-2.40	45 Tormenting others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 10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문항들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 1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안정되어 있고 신뢰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시 바로 회복되고, 자기 일에 열중하며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표현이 드물며 쉽게 흥분하거나 신경질적이고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집단 2는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고 또래들과 친하게 지내며 유머감각도 있으나, 계획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며,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있고 참을성이 부족하여 쉽게 흥분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집단 3은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하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면을 보이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 그러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오랫동안 걱정하는 편으로 놀림이나 비난에 쉽게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모호한 신체 증상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참조하여 집단 1은 자아탄력집단(Ego resilience group, ER집단), 집단 2는 과소통제집단(Under-controlled group, UC집단), 집단 3은 과잉통제집단(Over-controlled group, OC집단)으로 명명하였다.

ER집단, UC집단, OC집단의 CCQ 척도 T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Table 3). ER집단은 자아탄력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취약 점수가 가장 낮았다. UC집단과 OC집단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UC집단과 OC집단은 자아취약 점수와 과잉통제 점수가 높고 자아탄력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논의에서 기술하였다.

각 집단의 자아탄력 점수와 자아통제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Table 3), 자아탄력($F_{(2,176)}=19.307, p<.001$), 자아취약($F_{(2,176)}=61.797, p<.001$), 과소통제($F_{(2,176)}=22.923, p<.001$) 그리고 과잉통제($F_{(2,176)}=39.318, p<.001$) 점수에서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Tukey HSD) 결과 자아탄력성의 경우 ER집단이 UC집단과 OC집단보다 더 자아탄력적이었으며(각각 $p<.05, p<.001$), UC집단과 OC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자아취약과 과소통제, 과잉통제의 경우에는 UC집단과 OC집단이 ER집단보다 더 자아취약적이며, 과소통제와 과잉통제 경향 또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p<.001$), UC집단과 OC집단 간에는 자아취약과 과소통제, 과잉통제 측면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2. 자아탄력집단, 과소통제집단, 과잉통제집단의 기질 및 성격특성 비교

전체 집단의 CCQ 척도 점수와 청소년 기질 및 성격 특성 척도 점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자아탄력 점수는 위험회피 기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r=-.160, p<.05$), 사회적 민감성 기질, 인내력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241, p<.01$; $r=.152, p<.05$). 또한 자기초월 성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241, p<.01$). 자아취약 점수는 위험회피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r=.228, p<.01$),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각각 $r=-.167, p<.05$; $r=-.231, p<.01$), 성격 차원에서는 자율성과 연대감, 자기초월 차원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213, p<.01$; $r=.260, p$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alifornia Child Q-Test score and analysis of variance in the California Child Q-Test score of the three groups

Variables	ER group (n=112) M (SD)	UC group (n=31) M (SD)	OC group (n=36) M (SD)	SS	df	MS	F	Post hoc test, tukey HSD
Ego resilience	53.15 (8.18)	47.27 (8.33)	42.87 (11.88)	3171.31	2	1585.66	19.307*	ER group > UC group ER group > OC group
Ego weakness	45.04 (7.05)	56.32 (8.97)	59.64 (8.49)	7338.59	2	3669.30	61.797*	ER group < UC group ER group < OC group
Under-controlled	46.30 (6.78)	54.59 (13.77)	56.54 (9.98)	3717.95	2	1858.97	22.923*	ER group < UC group ER group < OC group
Over-controlled	45.79 (7.07)	56.39 (11.98)	57.71 (7.94)	5390.92	2	2695.46	39.318*	ER group < UC group ER group < OC group

* : $p<.00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SS : sum of squares, df : degree of freedom, MS : mean square, ER group : ego resilience group, UC group : under-controlled group, OC group : over-controlled group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the California Child Q-Test score and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score

	NS	HA	RD	p	SD	C	ST
Ego resilience	.038	-.160*	.241 [†]	.152*	.131	.142	.241 [†]
Ego weakness	.084	.228 [†]	-.167*	-.231 [†]	-.213 [†]	-.260*	-.145*
Under-controlled	.149*	.021	-.057	-.037	.017	-.156*	-.038
Over-controlled	.100	.175*	-.032	-.178*	-.171*	-.227 [†]	-.165*

* : $p<.05$, [†] : $p<.01$. NS : novelty seeking, HA : harm avoidance, RD : reward dependence, P : persistence, SD : self-directedness, C : cooperativeness, ST : self-transcendence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score and analysis of variance in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score of three groups

Variables	ER group (n=112)	UC group (n=31)	OC group (n=36)	Total group	SS	df	MS	F	Post hoc tests, tukey HSD
	M (SD)	M (SD)	M (SD)	M (SD)					
NS	52.96 (10.79)	60.97 (10.19)	53.33 (10.92)	54.42 (11.07)	1608.91	2	804.45	7.004 [†]	UC group > ER group UC group > OC group
HA	51.57 (10.60)	50.74 (8.48)	58.08 (9.24)	52.74 (10.30)	1304.55	2	652.27	6.518 [†]	OC group > ER group OC group > UC group
RD	47.11 (11.33)	46.71 (9.90)	43.47 (11.7)	46.31 (11.21)	366.03	2	183.01	1.466	
P	45.85 (9.50)	43.32 (7.86)	39.92 (10.34)	44.22 (9.66)	988.56	2	494.28	5.575 [†]	ER group > OC group
SD	44.89 (11.21)	42.29 (10.53)	39.58 (12.33)	43.37 (11.47)	812.07	2	406.03	3.162*	ER group > OC group
C	47.41 (11.40)	43.84 (10.85)	42.14 (12.39)	45.73 (11.67)	891.52	2	445.76	3.361*	ER group > OC group
ST	48.00 (11.81)	44.03 (11.40)	44.22 (11.41)	46.55 (11.74)	627.06	2	313.53	2.304	

* : $p < .05$, † : $p < .01$, ‡ : $p < .00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SS : sum of squares, df : degree of freedom, MS : mean square, ER group : ego resilience group, UC group : under-controlled group, OC group : over-controlled group, NS : novelty seeking, HA : harm avoidance, RD : reward dependence, P : persistence, SD : self-directedness, C : cooperativeness, ST : self-transcendence

<.05; $r = -.145$, $p < .05$). 과소통제 점수는 자극추구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149$, $p < .05$), 연대감 성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r = -.156$, $p < .05$), 과잉통제 점수는 위험회피 기질과 정적 상관($r = .175$, $p < .05$), 인내력 기질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 = -.178$, $p < .05$) 자율성과 연대감, 자기초월 성격 모두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171$, $p < .05$; $r = -.227$, $p < .01$; $r = -.165$, $p < .05$).

자아탄력성-자아통제 수준에 따라 분류된 세 집단 간에 기질 및 성격 차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 JTCI의 하위 척도 T점수를 산출하였다. 세 집단의 기질 및 성격 하위 척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기질 차원에서는 자극추구($F_{(2,176)} = 7.004$, $p < .001$), 위험회피($F_{(2,176)} = 6.518$, $p < .002$), 인내력($F_{(2,176)} = 5.575$, $p < .004$), 성격 차원에서는 자율성($F_{(2,176)} = 3.162$, $p < .045$), 연대감($F_{(2,176)} = 3.361$, $p < .037$)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민감성 기질($F_{(2,176)} = 1.465$, $p < .234$)과 자기초월 성격($F_{(2,176)} = 2.304$, $p < .103$)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Tukey HSD) 결과, UC집단이 ER집단과 OC집단보다 더 자극추구적이었으며(각각 $p < .001$, $p < .05$), ER집단과 OC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OC집단이 ER집단과 UC집단보다 더 위험회피적이었으며(각각 $p < .05$), ER집단과 UC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그리고 ER집단이 OC집단보다 인내력과 자율성, 연대감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나(각각 $p < .05$), ER집단과 UC집단, UC집단과 OC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수준에 따른 기질 및 성격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CCQ 자아탄력척도와 CCQ 자아통제 척도 질문지를 실

시하고, Q요인분석(inverse factor analysis)과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ER집단, UC집단, OC집단인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세 집단 간에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R집단이 UC집단과 OC집단보다 자아탄력 척도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자아취약 점수, 과소통제 점수, 과잉통제 점수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UC집단과 OC집단은 자아탄력 점수가 낮고 자아취약 점수와 과소통제 점수, 과잉통제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 척도를 통해 측정된 세 집단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ER집단은 기질 및 성격 척도의 하위 척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질적으로 새로운 자극에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면서도 쉽게 흥분하거나 성급하게 몰입하지 않으며, 감정의 기복이 적고 평온한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 또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를 경험한 후에 회복하는 능력이 양호하다.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독립적인 모습과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조적인 모습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성격적으로는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약점에 대해 때로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 이런 패턴 역시 자아탄력성을 '환경적 변화와 갑작스레 일어난 사건에 잘 대처하여 적응하는 능력', '인지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으로 정의하였던 Block과 Block²⁾의 개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Klohnen⁹⁾의 연구결과에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이 직장 및 사회적 영역,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영역 전반에서 상당히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자존감이 높고, 효율적 회복력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심리적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9,20,21)}

와도 일치한다.

UC집단의 기질 및 성격 차원을 보면,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격 차원의 모든 하위 척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패턴으로 볼 때 과소통제 집단은 기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새롭거나 낯선 자극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흥미와 관심의 범위가 넓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반면 부주의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편으로 침착하거나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준다. 또 마음이 자주 변하고,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하면 참기 어려워한다.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미성숙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불행감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분노나 미움을 갖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기 쉽고, 대체로 가라앉은 기분에 젖어 있으며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잘 느낀다. 이런 패턴 역시 낯선 상황이나 스트레스 등에 취약하고,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하다.¹⁴⁾ 특히, Ku와 Hwang,⁸⁾ Chuang 등²²⁾의 연구에서 과소통제집단이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외현화 증상뿐 아니라 때로는 내재화 증상과 외현화 증상의 공병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것과도 일치한다.

OC집단은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UC집단과 마찬가지로 성격 차원의 모든 하위 척도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를 볼 때 OC집단은 기질적으로 볼 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한 뒤에 행동하는 신중함이 있으나, 겁이 많고 소심하며 냉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새로운 일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적극성이 부족하고, 기회가 주어져도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작으며 친밀한 인간관계의 폭이 좁다. 이러한 결과 또한 과잉통제적인 아동 및 청소년이 자아탄력적인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하여 내재화 문제가 두드러지고, 행동과 감정 표현을 과도하게 억압하며, 소심하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2,4,23)} 성격 차원에서는 UC집단과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 척도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불행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나 미움을 갖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기 쉽다. 특히, 자율성이 매우 부족한 패턴으로 비효율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신뢰할 만하지 않으며,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자신의 개인적 목표나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외부환경의 자극과 압력에 반응하여 행동이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패턴은 Ku와 Hwang 등¹⁴⁾의 연구에서 OC집단이 내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반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친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는 불일치

는 결과이다. 또한 Block과 Block²⁾의 연구결과에서 OC집단이 자신의 욕구와 정서, 행동에서 억제가 심하다고 본 것과 비슷하게 본 연구의 OC집단은 대체로 가라앉은 기분에 젖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CQ 척도의 네 가지 하위척도(자아탄력, 자아취약, 과소통제, 과잉통제)점수를 살펴보면, UC집단에서는 과잉통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C집단에서는 자아취약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에 CCQ 척도의 네가지 하위 척도의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에 대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요인들 간의 일치상관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치상관이 가장 높은 2요인이 아닌 3요인을 선택한데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2요인 모델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집단이 분류되었는데, 이 경우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른 차이만 검증해 볼 수 있고 자아통제 수준에 따른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분석 전에 무성의한 반응 패턴으로 제외된 참가자 23명의 검사 질문지 반응 양상을 볼 때, 이들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특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과소통제적인 특성을 가졌으며, 이것이 요인분석 및 일치상관 산출, 또 CCQ의 과소통제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UC집단과 OC집단의 크기가 ER집단에 비해 1/3 이하이고, 그 중에서도 UC집단에 속한 참가자의 수가 가장 적었음을 고려하면, 제외된 23명의 참가자가 정상적으로 연구에 참가했을 경우 과소통제 및 과잉통제 점수의 양상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UC 및 OC집단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정적 피드백으로 인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보호자에게 과잉통제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감이 있고 유능하게 기능하는 ER집단에 비해 쉽게 흥분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UC집단이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OC집단은 사회적 상황에서 오는 부정적 피드백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결과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보호자에게는 과잉통제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고, 두 집단 모두의 과잉통제 점수가 높은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자기초월성격이 자아탄력 점수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자아취약 점수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각 집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변량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는 상관분석과, 각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는 분산분석의 측정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상관분석은 기질과

집단이 아닌 기질과 점수를 변인으로 그 관계를 검증한 것이며, 변량분석은 그 점수를 토대로 분류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각 집단 크기의 차이가 컸던 점이 각 집단 간 차이를 밝히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집단 크기를 비교적 동일하게 구성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만큼 ER집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UC집단과 OC집단이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본의 특징으로 인해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환경적 요구에 따라 충동을 억제하거나 표출하는 능력을 뜻하는 자아통제의 수준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런 점에 대한 보충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임상집단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취약한 집단으로 예상되며, 자아통제 수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특정 기질 및 성격 특성이 두드러질 수 있겠다.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탄력성이 취약한 집단(UC집단과 OC집단)이 서로 비슷한 성격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상 집단에서는 UC 집단과 OC집단 간의 서로 다른 패턴의 성격 특성을 보일 수 있겠으며,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다소 부주의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보이는 UC집단이 그렇지 않은 OC집단에 비해 좀 더 높은 자아탄력성을 보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를 확장함으로써 임상집단의 좀 더 세부적인 기질 및 성격 특성을 파악하여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임상집단에서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이해를 통해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능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고, 이를 토대로 임상집단의 보호요인 또는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력에 따른 기질 및 성격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임상집단 대상 연구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하위 유형 검증이 도움이 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활성화되는 기능을 조절하며 충동성과 관련이 있는 신경 체계인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처벌이나 위협의 신호, 혹은 보상부재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억제되는 기능을 조절하며 불안과 관련이 있는 신경 체계인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를 설명하는 Gray와 이를 보완한 Cloninger의 이론에 바탕을 둔 표준화된 검사인

JTCI를 사용하여 자아탄력 및 자아통제 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주변 환경이나 심리적 지지의 영향력보다 좀 더 생물학적인 기반에 기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충동을 억제하거나 표출하는 능력인 자아통제의 개념을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를 기반으로 한 기질 및 성격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중심 단어: 자아탄력 · 자아통제 · 기질 · 성격.

References

- 1) Kim YH, Hwang S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effects of children's control belief. *Korean J Clin Psychol* 2003;22:343-362.
- 2) Block JH,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Collins WA, editor. *The Mim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Erlbaum;1980.
- 3) Asendorpf JB, van Aken MA.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personality prototypes in childhood: replicability, predictive power, and the trait-type issue. *J Pers Soc Psychol* 1999;77: 815-832.
- 4) Hart D, Hofmann V, Edelstein W, Keller M.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 Psychol* 1997;33:195-205.
- 5) Huey SJ Jr, Weisz JR.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 Abnorm Psychol* 1997;106: 404-415.
- 6) Robins RW, John OP, Caspi A, Moffitt TE, Stouthamer-Loeber M.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 Pers Soc Psychol* 1996;70:157-171.
- 7) van Lieshout CFM, Haselager GJT, Riksen-Walraven JM, van Aken MAG. Personality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1995.
- 8) Ku HM, Hwang ST. A validity study on ego resilience scale and ego control scale of California Child Q-set (CCQ). *Korean J Clin Psychol* 2001;20:345-358.
- 9) Klohnen EC.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 Pers Soc Psychol* 1996;70:1067-1079.
- 10) Tugade MM, Fredrickson BL.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 Pers Soc Psychol* 2004;86:320-333.
- 11) Tugade MM, Fredrickson BL, Barrett LF.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al granularity: examining the benefits of positive emotions on coping and health. *J Pers* 2004;72:1161-1190.
- 12) Funder DC,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ego-resiliency, and IQ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 Pers Soc Psychol* 1989;57: 1041-1050.
- 13) Digman JM.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 Rev Psychol* 1990;41:417-440.
- 14) Ku HM, Hwang ST, Kim JH. The personality traits of ego resilient. *Korean J Clin Psychol* 2001;20:569-581.
- 15) Gray JA. Perspectives on anxiety and impulsivity: a commentary. *J Res Pers* 1987;21:493-509.
- 16) Sjöbring H. Personality structure and development. A model and its application. *Acta Psychiatr Scand Suppl* 1973;244:1-20.
- 17) Cloninger CR, Svrakic DM, Przybeck TR.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 Gen Psychiatry* 1993;50:975-990.
- 18) Luby JL, Svrakic DM, McCallum K, Przybeck TR, Cloninger CR.

-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of a child self-report measure. *Psychol Rep* 1999;84:1127-1138.
- 19) **Min BB, Oh HS, Lee JY.**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st ed. Seoul: Maumsarang;2007. p.6-14.
- 20) **Block J.**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1978.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1).
- 21) **Kim JY, Chung BK.** The relationship between BAS/BIS, ego-resiliency, and Well-being. *Korean J Health Psychol* 2003;16:313-327.
- 22)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 Pers Soc Psychol* 1996;70:349-361.
- 23) **Chuang SS, Lamb ME, Hwang CP.**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Sweden. *Int J Behav Dev* 2006;30:338-343.
- 24) **Juffer F, Stams GJ, van Ijzendoorn MH.** Adopte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ego resiliency, ego control, and sociometric status. *J Child Psychol Psychiatry* 2004;45:697-706.